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9권 제2호(2013) 203-222

관계적 공간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삶*

박 규 택**

Married Immigrant Women's Life in Relational Spaces*

Park, Kyu-Taeg**

요약 :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조직, 국가와 관계하면서 겪는 갈등, 차별,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을 새로운 시각, 즉 초국가(국경을 초월한 로컬과 로컬의 관계), 로컬, 국가와의 관계적 공간[1]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제결혼에 의해 초국가적 공간이 형성되며, 생성된 공간은 결혼 이주 여성의 (비)일상적 활동에 의해 유지된다. 초국가적 활동은 송금(remittance), 자녀의 양육과 교육, 친정 방문,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기관 등과 연관됨에 따라 중층적인 관계적 로컬 공간이 형성·유지되고 있다. 셋째는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 취득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 사업의 측면에서 국가 권력 혹은 정부 행정과 연관되어 있다. 국민 정체성과 관련지어 결혼 이주 여성은 모국과 한국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이 불명확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주요어 : 결혼 이주 여성, 초국가적 공간, 로컬, 관계적 공간, 국가 권력, 국민 정체성

Abstract : This study has been implemented under the two purposes. One is to critically explore how married immigrant women had experienced or experience conflicts, differentiation and so on occurred in their relations to family, neighbor, friend, organization and nation. The other is to understand married immigrant women and family through a new perspective based on a relational space of interacting trans-nation, local and 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ly, transnational space is produced by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an and foreign woman and kept (or activated) by (non) everyday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family. There are remittance, children's rearing and education, visits to mother's house, emotional interactions by phone and computer and so on. Secondly, multi-layered and relational local spaces have been (re)produced by married immigrant women's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family, neighbor, friend, nation and so on. Thirdly, married immigrant women's relations to nation state or government has been specifically presented (or expressed) through the acquiring of Korean nationality and government's activities of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y. Married immigrant women feel that their national identity between mother's nation and Korea is ambiguous and undecided.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transnational space, local, relational space, nation state's power, national identity

1. 서 론

한국은 오랫동안 동질적인 사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초국가적 자본과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기인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단일 민족과 언어의 공동체' 신화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한국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전환될 것이며, 복잡한 사회·문화·경제 문제들, 즉 이중 국적, 다중언어 교육, 인종 차별과 갈등, 소득 불균등의 심화 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의 거주와 생활이 예외가 아닌 일반적 상황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들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노동과 결혼이 이주의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국제결혼[2]에 의한 외국인 여성의 이주는 한국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HK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pkt11@pusan.ac.kr)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과 지역(로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시작된 국제결혼[3]은 2001년 9,684건에서 2005년 30,719건으로 증가한 뒤 감소 추세를 보여 2011년에 22,265건이었다. 2004년의 경우 국제결혼 건수가 총 결혼 건수의 10%를 넘었다(여성가족부, 연구보고 13, 2012). 2000년 이후 증가하는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관련된 인식과 활동, 특히 국가 경계를 초월한 활동은 국민국가에 기초를 둔 이주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대체 이론으로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초국가적 사회장(transnational social field)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김정선, 2010; 김혜선, 2012; Levitt and Glick Schiller, 2004; Wimmer and Glick Schiller, 2003). 이들 이론은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모국의 로컬과 한국의 로컬을 연관시킨 초국가적 공간(transnational space)의 관점에서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은 특정 로컬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가족, 이웃, 친구, 단체, 행정기관 등과 일상적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고, 법적 지위와 사회·문화적 지원의 측면에서 국가 혹은 지방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의 (비)일상적 삶 속에서 어떻게 초국가적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가족·이웃·친구 등과 불균등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 국가(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는지 밝히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중국(조선족 포함),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구술을 통해서 수집되었으며, 분석은 초국가적 공간의 형성과 활성화, 중층적·관계적 로컬 공간, 국가 권력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2. 연구 자료와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

1) 자료의 수집과 특성

결혼 이주 여성의 연구 방법은 크게 양적인 행정 혹은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통계학적 접근법과 참여 관찰, 구술, 자서전, 문학 작품 등의 자료에 근거한 질적 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구술에 근거한 질적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구술이 갖는 개별성, 주관성, 편향성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행정 통계와 기존 연구 결과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술 자료에 기반한 질적 분석의 한계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의 삶에 대한 일반화 혹은 객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연구의 기초 자료는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생의 결혼이주 여성 20명의 구술이며, 조사는 2011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구술자와 같은 국가 출신(베트남, 중국, 필리핀)의 대학원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후 한글로 전사·감수되었다.[4]

20명의 구술자는 베트남 여성(7명), 중국 여성(8명), 필리핀 여성(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 여성들은 구미시에 그리고 나머지 여성들은 대구시(북구, 남구, 서구, 달서구 등)에 거주하고 있다. 구술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6명, 30대가 10명, 40대가 4명으로 대체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남편의 연령은 30대가 2명, 40대가 13명, 50대가 2명으로 40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의 나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나이는 대체로 20대 중반이지만 한국 남편의 나이는 40대 중·후반으로 거의 20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 결혼 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차는 베트남 여성 가정이 17년(부인 평균 24.3세, 남편 평균 41.3세)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필리핀 여성 가정이 10.9년(부인 평균 31.7세, 남편 평균 42.6세)이고, 중국(조선족 포함) 여성 가정이 6.7년(부인 평균 39.5세, 남편 평균 46.2세)으로 나타났다(김혜선, 2012, 32).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가운데 20대가 57%(57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가 31%(31명)인 반면에 한국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55%(55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가

30%(30명)였다(성현란, 2011, 227).

구술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에서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다양하며, 남편과의 학력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이한 경우로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16년간 근무하다 39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경우다(사례 17).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 이민자 여성[5]의 학

표 1. 구술자 특성

사례	출생 국가	연령		학력		결혼		자녀 수	거주지	기타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연도	경로			
1	베트남	31	37	대졸	대졸	2006	직접 만남 (구미 회사)	1	구미시	
2	베트남	35	44	대학중퇴	고졸	2000	직접 만남 (산업연수생)	3	구미시	
3	베트남	29	46	미상	미상	2005	결혼중개업체	1	구미시	
4	베트남	25	41	고등중퇴	대졸	2009	결혼중개업체	1	구미시	
5	베트남	26	53	고졸	미상	2004	직접 만남 (베트남 한국공장에 출장 온 남편)	1	구미시	
6	베트남	26	46	초등중퇴	미상	2005	결혼중개업체	2	구미시	
7	베트남	28	48	미상	미상	2007	결혼중개업체	1	구미시	
8	중국 (한족)	41	46	고졸	고졸	2009	지인소개	없음	대구시	
9	중국 (한족)	31	40	초등졸업	고졸	2007	결혼중개업체	1	대구시	
10	중국 (한족)	34	45	고졸	미상	2003	지인소개	2	대구시	
11	중국 (한족)	32	44	대졸	고졸/대졸	2007	지인소개	있음	대구시	
12	중국 (한족)	32	미상	고졸	고졸	2007	지인소개	1	대구시	
13	중국 (한족)	36	42	고졸	미상	2009	결혼중개업체	1	대구시	
14	중국 (조선족)	49	55	고졸	대학원 졸	미상	친척소개	없음	대구시	이혼
15	중국 (한족)	31	32	고졸	고졸	2004	직접만남 (산업연수생)	2	대구시	
16	필리핀	37	미상	미상	미상	2001	종교(통일교)	2	대구시	남편사망
17	필리핀	45	47	대졸	초등졸업	2007	지인소개	없음	대구시	영어강사
18	필리핀	45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지인소개	1	대구시	남편사망, 영어강사
19	필리핀	26	45	미상	미상	2010	결혼중개업체	1	대구시	이혼과정 (별거)
20	필리핀	36	46	대졸	고졸	2004	직접만남 (산업연수생)	2	대구시	

표 2. 국제결혼(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대상 국가

(단위: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베트남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필리핀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일본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캄보디아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자료: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13, 2012, p.43

력은 총 응답자(226,084명)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10.3%), 중학교 졸업(23.5%), 고등학교 졸업(45.6%), 대학교 졸업 이상(20.5%)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66.1%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연구 사례의 경우, 자녀수는 1~2명이다. 2012년 다문화 가족의 평균 가족 수는 0.9명이며, 총 266,547 가구수 가운데, 자녀가 없는 가구는 37.3%, 1명인 가구는 37.1%, 2명인 가구는 20.9%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2)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의 결혼 이주 여성 현황

2012년 한국 전체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총 조사자(283,224명) 가운데 2.6%가 대구광역시에 그리고 4.4%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결혼 이민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28.8%), 서울(25.3%), 인천(6.2%), 경상남도(5.3%) 순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2.7%와 5.1%가 거주하고 있다. 출신 국적별로 보면, 총 조사가구(266,547가구) 가운데 중국(한족과 조선족)이 53.3%, 베트남이 18.3%, 일본이 5.8%, 필리핀이 5.3%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2000년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추세를 보면, 중반까지는 중국과 베트남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일본 여성의 수는 2000년대 후반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

대구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현황을 보면, 총 외국인 21,922명(남자 12,209명, 여자 9,713) 가운데 중국인이 6,967명(남자 3,147명, 여자 3,8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인이 4,092명(남자 1,825명, 여자 2,267명), 인도네시아인이 1,489명(남자 1,292명, 여자 197명), 필리핀인이 1,306명

표 3. 국적별 외국인 여성의 공간분포(대구광역시, 2012년)

(단위: 명)

	합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합계*	9,713	3,820	2,267	799
중구	381	114	50	17
동구	1,044	410	277	79
서구	874	338	301	59
남구	576	167	133	96
북구	2,189	1,054	416	167
수성구	767	213	115	45
달서구	2,908	1,213	663	252
달성군	974	311	312	84

자료: 대구광역시, 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2012.
* 합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가들의 여성 수를 합한 것이다.

(남자 507명, 여자 7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2012). 2013년 3월 구미시에 총 5,234명(여자 2,161명, 남자 3,073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며, 이들의 국적 현황은 중국인이 1720명(여자 869명, 남자 8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인이 1,258명(여자 578명, 남자 680명), 인도네시아인이 687명(여자 116명, 남자 571명), 필리핀인이 368명(여자 207명, 남자 161명)이었다(구미시, 2013).

2012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9,713명)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달서구(2,908명), 북구(2,189명), 동구(1,044명) 순으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은 달서구·북구·동구에, 베트남 여성은 달서구·북구·달성군에, 필리핀 여성은 달서구·북구·남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2012년에 구미시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가족수 3,639명 가운데, 인동동(505명), 양포동(480명), 상모사곡동(278명), 도량동(272명), 선주원남동(233명), 고아읍(237명), 송정동(2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구미시, 2012).

3. 문헌 고찰

일반적으로 이주 연구는 국민국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도시와 농촌 간 혹은 도시와 도시 간 이주 그리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 이주가 연구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국민국가 중심의 이주 연구는 세계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신자유주의 등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국가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됨에 따라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진행된 이주 연구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Bauder(2013)에 의하면, 인간 이동의 연구자들은 이주를 영토적 국민국가(territorial nation-state) 틀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규정지었다. 따라서 이들 연구 국가 규모가 아닌 다양한 (비)공간적 관점에서의 이주와 이주자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존재론적 범주(ontological category)로써 국민국가를 재생산하는 문제점을 보였다(Bauder, 2013, 56). Wimmer and Glick Schiller(2002, 2003)는 사회 과학에서 진행된 이주 연구가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국민·국가·사회(the nation/state/society)는 근대 세계의 자연적인(혹은 객관화된) 사회·정치 형태이다"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주의 사고와 이주의 개념화는 서구의 국민국가 생성의 과정에서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여 왔다(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 301). 이에 반해 초국가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를 포함한 초국가주의 연구는 21세기 초반의 지구화 진전과 연계되어 있다(Wimmer and Glick Schiller, 2003, 576). Portes(1999, 2003)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연구의 함정과 희망 그리고 초국가주의 이주자 연구들의 이론적 수렴과 경험적 증거를 논의하였다. 초국가주의는 역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풀뿌리 현상이면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과정이다(Portes, 2003).

초국가주의 이주에 대한 국내 지리학자들의 연구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진행되었다(류주현, 2012; 박배균, 2009; 임석회, 2009; 정현주, 2008; 최병두, 2012). 이들 논의는 일반적으로 노동이주와 결혼 이주로 구분될 수 있다. 초국가주의, 초국가적 이주를 다룬 지리학적 연구들은 박경환(2009), 박배균(2009), 최병두(2012) 등이 있고, 결혼 이주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류주현(2012), 박신규(2008), 이용균(2007), 임석회(2009), 정현주(2008), 조현미(2008), 최재헌(2007) 등이 있다. 초국가적 공간과 이주·일상생활에 관한 외국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Gielis, 2009; Hoang & Yeoh, 2012; Ley, 2004; Voigt-Graf, 2004). 본 연구의 핵심인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의 초국가적 관계 활동은 이주의 여성화(feminisation of migration), 초국가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초국가적 사회장(transnational social field)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김정선, 2010; 김혜선, 2012; 정현주, 2008; Levitt and Glick Schiller, 2004; Wimmer and Glick Schiller, 2003).

1990년대 이후 국제 결혼,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상이한 문화에 토대한 초국가적 가족이 형성되고, 외국인 여성의 모국과 한국의 국가 경계를 초월한 활동에 의해 초국가적 공간이 생성·유지된다. 이러한 현

상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 이주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박배균(2009)과 정현주(2008)는 초국가적 이주를 스케일(scale)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 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 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정현주, 2008, 894). 그리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공간적 정착과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될 수 있다"(박배균, 2009). 그러나 초국가적 이주 혹은 결혼 이주 여성을 스케일, 네트워크, 경계넘기 등의 관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왜 구성되어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로컬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일상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어떠한 관계적 공간이 형성되고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삶에 국민국가의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남겨 놓고 있다.

4. 국제결혼에 의한 초국가적 공간의 형성과 활성화

1)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초국가적 공간은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생성된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한국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외국(하와이)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의 일이다. 한국 여성은 가난과 가부장 제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감행하였다. 이제 역으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게 기대를 갖고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는데, 이는 시차를 두고 있지만 한국 여성의 해외 이주와 유사한 점이 많다.

20세기 초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한국의 여성들은 한 장의 사진에만 의존하여 언어, 관습 등 모든 것이 다른 미지의 땅인 하와이로 결혼 이민[6]을 떠났다. "미국은 부자 나라이며 거리에 황금이 깔린 나라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다. … '사진결혼으로 미국간다'는 생각은 나의 해방의 열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했지만요. … 미국에서 보내온 '신랑'들의 사진 넉 장을 앞에 놓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흥분된 순간도 경험했다. 자기(자신)의 사진을 그 남자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남자가 만족하면 그는 그 남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사진이 오고 가는 것이 끝이었다. … 이렇게 하여 열다섯 살 때 '남편'을 선택했다"(신성려, 1979, 275).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이념 대립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참전한 미군은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 살아오던 많은 한국 여성들이 그들과 결혼[7]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미국 주류 사회로 진입하기도 어려웠지만 한국인,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도 배척·차별 당했다. 이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일상적 저항 (everyday resistance)'[8]을 전개하기도 했다(여지연, 2003).

199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여성들이 나은 삶과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 소위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에 속한 국가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여성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한정된 (혹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불확실한 삶을 시작하였다.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는데, 전국 결혼 이민자 여성(226,084명) 가운데 본인의 선택이 44.1%, 친구 및 동료 소개가 30.9%, 가족 및 친척 소개가 17.8%, 종교기관이 4.7%, 결혼 중개업체가 2.3%, 기타가 0.1%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연구보고 13, 2012). 연구 사례에 의하면, 결혼 중개업체(8건), 직접 만남(5건), 지인 혹은 친척 소개(7건), 종교(1건)를 통해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을 만났다(표 1). 전국 조사와 비교하면, 결혼 중개업체 건수가 상당히 많다. 대구·경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

의 연구에 의하면, 혼인 경로 중 결혼 중개업자가 55 %(55건)로 가장 높고, 친구나 지인이 17%(17건), 결혼한 사람의 소개가 11%(11건), 연애가 6%(6건) 순으로 나타났다(성현란, 2011, 227). 베트남 사례를 보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 결혼수가 4건이며, 다른 경로의 경우보다 외국인 여성(20대)과 한국 남성(40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9] 중국과 필리핀의 사례들은 베트남의 경우보다 다양한 경로, 즉 친구, 지인, 가족, 직접 만남(산업연수생), 종교(통일교)[10] 등을 통해 국제 결혼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는 수요측(한국)의 요인들과 공급측(외국, 특히 저개발국가)의 요인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수요 측면에서 인구의 구조적 불균형, 지역별(농촌과 도시) 인구 불균형, 양성 평등 관념의 확산과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화, 노동의 국제적 이동, 외국여성이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기 위하여 한국 남성들을 선호하는 코리안 드림 등을 주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연구 사례에서도 산업 연수생으로 구미 혹은 대구에 위치한 회사에 일하는 과정에서 한국 남성과 알게 되어 결혼한 경우가 있다.

>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산업연수생으로 3년 넘게 일하고 남편 을 만나 1년 반 동안 열애해서 결혼했어요. 언니들은 베트남으로 출장 온 형부들과 거기서 만나고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데 남편을 만나서 좋아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사례 2).

> 저는 반도체 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일 했습니다. 저는 품질 경영 부서에서 일 을 했습니다. 공장은 Laguna에 있는 Calamba에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25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연수생으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 저는 필리핀에서는 돈을 저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필리핀) 월급은 아주 적습니다(사례 20).

2) (비)일상적 실천에 의한 초국가적 공간의 활성화

국제결혼에 의해 생성된 초국가적 공간은 상이한 두 로컬에 기반을 둔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과 시댁 식구들의 다양한 관계적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됨에 따라 활성화된다. (비)일상적인 관계적 실천들에 의해 유지되는 초국가적 공간은 국민국가가 지배하는 사회·경제 공간 혹은 국민국가 내부에 형성·유지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새로운 생존 전략들이 모색될 수 있고 나아가 기존의 국민국가 담론 (혹은 지배질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질서 창조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독점적(배타적) 국민국가의 지배 공간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위계적) 관계 공간에 초국가적 공간이 새롭게 첨가됨에 따라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질서가 형성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들이 모색·실천될 수 있다. 김혜선(2012)은 초국가적 가족의 논의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행위자성에 주목하고 있다. "행위성은 가부장적 억압, 자본주의 착취 그리고 헤게모니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주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위계적 사회관계를 조정하며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상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김혜선, 2012, 22). 김정선(2010)은 결혼 이주 여성이 친정으로 보내는 송금의 다면성, 즉 자원으로서 초국적성, '지배적인 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초국적 실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즉, 초국가적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의 수동성, 억압성 등의 시각을 넘어서 기존의 국민국가 지배질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이념 혹은 질서가 탐색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언어, 부부와 시댁 가족의 관계, 친정 가족과 헤어짐, 고향의 그리움, 이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 적응의 어려움, 외로움을 친정 가족의 정서적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2009년과 2012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이라고 호소하였다. 언어와 경제 문제는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외로움은 심화(9.6%에서 14.2%)된 것으로 나타났

다(여성가족부, 2013).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이 부부와 시댁 가족 그리고 로컬의 사회관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에 따라 단절(고립)된 느낌을 갖고 나아가 장래 필리핀 가족들로부터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며, 모국(필리핀)으로 귀환을 계획한다[11](김정선, 2010). 중국 결혼 이주 여성이 경제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서 중국의 친정 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자보다 후자의 측면에서 친정 가족이 결혼 이주 여성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결혼 이주 여성들과 친정 가족은 서로서로 경제적으로는 약간의 도움만을 주지만, 감정적인 도움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중국 결혼 이주 여성의 친정 가족들은 그들의 옆에서 지킬 수 없지만 감정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왕치엔, 2011, 42).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낙태와 이혼의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와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 모국의 부모, 가족, 친구 등의 정서적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12]

> 저희 어머니께 이것(남편의 낙태강요와 폭력)을 말했을 때 어머니는 제 의견을 지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낙태를 하고 필리핀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요? 부끄러운 채로 살아요? 그냥 여기서 살래요…." 저 눈물이 나요(사례, 19).

> 처음에 왔을 때는 외로운 느낌이 강했어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울었어요. 고치지 않으면 제가 미치게 됐어요. 나의 정신적 지원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중국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것은 주로 컴퓨터로 하는데 친구를 모르면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이에요. 내가 임신을 한지 한 7개월 되고 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사례 11).

초국가적 가족의 다양한 관계적 활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초국가적 공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친정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remittance)이다. 송금 문제는 여러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구술한 송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친정 가족이 생존 혹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송금하는 경우이며, 국제결혼의 목적이 친정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함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사례 4 & 7). 다른 하나는 가족의 도리로 친정을 돕거나 부모 생일 혹은 친정에 경사(흉사)가 있을 때 송금하고자 하며, 이 경우는 국제결혼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유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사례 17).

>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일을 안 하니까…. 부모님은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 힘든 일을 하고 계시고, 집도 다른 사람의 집처럼 좋지 않고 빚도 많이 있는데…. 아빠는 힘든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버는 돈이 너무 적어요. 저는 베트남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일을 할 겁니다(사례 4).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했는데, 부모님께 가끔씩 돈을 보내요. 한번에 30만원 정도 보내요.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돈을 벌어야 되요. 가끔 베트남 가족한테 돈을 보내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계속 남편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해달라고 해도 남편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사례 7).

>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필리핀에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생신날과 아버지 기일 때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을 때가 아니면 일 년에 한 번씩 돈을 보냅니다. 가끔씩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그들 것은 그들 것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많이 돈을 저축하기 위해 당신 것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 돈은 어디로 갔고 그 돈은 어디로 갔니?"라고 물어 볼 때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사례 17).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친정으로 보내는 송금이 가족의 생존, 가난의 탈피, 가족과 지속적 유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송금이

친정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혹은 의사 결정권 강화, 친정가족을 통한 저축 및 투자에 의한 재산 증식[13]과 노후 삶의 터전 마련, 친정에 자녀 양육과 교육 위탁 등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김정선, 2010; 김혜선, 2012; 임안나, 2005).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송금의 능동적 역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초국가적 공간은 모국(친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문화습득, 미래 자녀들의 경제활동 기대, 사업 잠재성, 노후 삶의 터전 등에 의해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자의 모국으로 자녀를 유학을 보는 데 대해 전체 배우자 4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모국으로의 자녀 유학에 대해 부정적 태도는 남성과 농촌지역 거주자, 연령이 많을수록, 부부간 연령 차이가 큰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은 "자녀들이 필리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외가 친척들과 접촉하고 친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필리핀에서 자녀의 학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경제적 측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한다"(임안나, 2005, 87). 다음은 모국으로 자녀 유학과 사업 잠재성에 대한 사례들이다.

> 나중에 아이를 필리핀 친정에 데려가서 공부시킬 계획 세우고 있어요. 필리핀은 교육비가 여기보다 훨씬 싸고, … 또 국제결혼도 이렇게 많이 하는 세상인데 아이가 영어권(필리핀)에서 공부해서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일 할 수 있게요. 요즘은 영어 잘하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하고 정말 좋은 점이 많으니까요(에블린).[14]

> 이제는 한국이 좀 좋아요. 여기가 우리 집으로 보여요. 중국에 돌아가도 여기서 뭘 먹을지 그리고 여기의 사람이 어떤지를 생각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면 아직 중국편이에요. 한국에서 미용을 배우고 아이에게 중국어 공부를 시켜요. 초등학교 일학년이면 1,2만 인민폐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나와 남편은 50세 전에 아이를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오려 해요(사례 11).

5. 중층적 가족 및 이웃 관계

국제결혼에 의해 외국인 결혼여성이 국내로 이주하여 특정 장소에 정착하여 살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새로운 로컬공간이 형성·유지되고 있다. 소위 '단일 민족과 언어'에 기초한 한국사회는 상이한 국적, 인종, 언어 등을 지닌 여성 결혼 이주자들이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 규범, 관습 등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세한 저항[15]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에 의해 새롭게 생성·유지되는 로컬의 사회·문화 공간은 다양한 관계들, 즉 가족(부부, 시댁, 자녀), 친척, 이웃, 친구,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비)일상적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장은 가족 관계, 이웃과 친구 관계, 이웃의 차별 인식을 논의한다.

1) 가족 관계

(1) 경제적 공간

경제는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의 물질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부부, 시부모/시댁식구)관계의 권력구조[16], 즉 독립 혹은 종속, 의사 결정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가 남편 월급의 지출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편의 월급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는 돈도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쓰는 데가 주로 의료비이나 복권을 사는 비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동이체해요. 남은 돈은 딸의 학교비용이고 마트에 가서 카드로 결제해요. 다른 큰 소비가 없고 경제적 갈등은 없어요"(사례 12). 이와 반대로 여성 결혼 이민자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종속(의존)됨에 따라 불만을 넘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남편은 2만원의 교통카드를 줬어요. 센터에서 요리수업을 듣고 수업

때문에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남편은 수업을 듣는 곳에서 밥 먹는 건 빼고 나에게 그냥 2만원이 있는 교통카드를 줬어요. 이 때문에 저는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창피해요. 그가 나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지처럼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결혼하고 남편의 재산을 제가 관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사례 13).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권력관계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부 경우와 같이 가정 경제가 시부모의 경제력에 종속되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시부모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시부모의 생활비 문제로 인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시부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내 남편은 전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대구에 있는 우리를 아는 중국 사람은 다 내 남편이 일자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임신하고 나서 남편은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전에 주로 자기가 혼자이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댈 수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시어머니가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나에게 주고 남편도 나에게 생활비를 줘요. 우리가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 모든 돈을 시어머니가 내요(사례 9).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주는 용돈이 많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돌보고 우리랑 같이 살아서 용돈을 조금이라도 줘야 해요. 남편의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다 줄 수 없어요. 아기를 키우는 것도 돈이 필요하고, 밥을 안 먹어도 보험료 등은 내야 해요. 집에서도 일상적인 소비가 있어요. 내가 온 후에 가정의 모든 비용을 관리해요. 아마 이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줘서 2006년부터 갑자기 갈등이 심화됐어요(사례 10).

(2) 문화적 차별 공간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내에 상이한 문화, 즉 언어, 관습(풍습), 종교[17] 등이 충돌함에 따라 다양한 차별적 공간이 형성된다. 연구 사례에 의하면, 언어를 매개한 소통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 차별적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오해, 불만, 무시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부인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남편이 틀린 점을 가르쳐주지 않고 비웃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사례 9)와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미를 물으면 “이미 말했다. 왜 자꾸 묻니?”라고 해서 말싸움을 하는 경우(사례 15)도 있다. 20대 중반의 베트남 부인과 50대 초반의 한국인 남편의 경우, 부인이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언어 문제로 인해 부부의 장벽을 느껴 결혼생활이 만족되지 못함을 구술하였다(사례 5).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정확한 한국말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울음으로 표현하지만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가 우는지를 여전히 몰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아는 회사 동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사례 13).

제일 어려운 것이 주로 언어랑 인간관계이에요. 한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짜증나요. 일상생활 중에는 언어 때문에 작은 갈등이 많이 있어요. 아기가 몸이 약하고 항상 토해요. 어느 날 밤에 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내게 행주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신문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했고, 내가 다른 물건을 찾아왔지만 또 아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내가 행주조차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나를 훈계했고 나는 매우 속상했어요. 언어 때문에 교류하지 못하고 갈등도 많아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말을 할 줄 몰라요. 이때가 제일 괴로워요. 너무 답답해요. 자기 욕을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반격을 하지 못해요(사례 10).

크고 작은 관습들, 제사, 호칭, 결혼 초기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 수저 놓기 등으로 인해 차별적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외국인 며느리는 결혼 초기 매일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해야 하는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

도 한다. “한국에는 예의가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매일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매일 5분 정도 안부를 하는 것이 좀 싫었어요. 이 때문에 한번 싸웠어요. 계속 안부를 물으라고 해서 매우 싫었어요. 저는 한국의 번잡하고 불필요한 예절이 싫어요. 그리고 수많은 필요 없는 예절이 있는 게 이해가 안돼요. 이점은 매우 적응이 안돼요”(사례 11). 아래의 두 사례는 제사 문화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차리기 관습에 의해 차별적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남편은 제사를 안 모시면 조상에게 너무 미안해해서 마음이 답답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전에는 같이 제사를 할 때는 매우 싫었어요. 아직 상의 서열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사를 할 때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는 자기의 일만 해서 화가 났어요. 끝나고 나서 나를 부르고 밥을 먹자고 하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했어요. 가끔 딸을 데리고 제사를 할 때는 시아버지가 시끄럽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바로 딸을 데리고 집에 올라갔어요. 시아버지에게 인사조차 안 했어요. 그는 아기에게 잘해 주지 않아요. 계속 아기가 시끄럽다고 해요. 시끄럽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사례 12)

> 한 번 시어머니의 집에 있을 때는 저보고 수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너무 많아서 골라야 했어요. 내가 어떻게 고르는지 몰라서 잘못 골랐는데 시어머니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울면서 나갔고, 남편은 내가 나간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왜 소리를 질렀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수저를 엉망진창으로 놓았다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여기랑 달라서 나도 잘 몰랐어요. 중국의 수저는 다 같아서 잘못 고르는 것이 없어요. 한국의 쇠젓가락은 뒤에 있는 무늬도 달라서 어려워서 대충대충 고르고 놓았어요. 뒤에 있는 무늬를 자세히 안 봤어요. 그때는 몰랐었죠(사례 13).

(3) 자녀 양육과 교육 공간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자녀는 부인의 존재 이유와 미래 희망, 친정(혹은 모국)과 유대 강화, 이중 언어와 교육의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자녀들은 한국의 전통적 가정과 다른 환경, 즉 부모의 가치, 언어, 관습 등이 혼합된 환경에서 성장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출생 국가에 상관없이 연구 사례의 대부분에서 부인은 행복한 가정생활과 함께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자신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다양한 고민(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어린 자녀(딸, 6세)를 둔 부부는 둘 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자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둔다. “지금 제가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는데 친척과 시댁 식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 딸은 아침 7시 15분부터 어린이집에 가고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 데리고 와요. 보통 8시에 퇴근하고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거의 9시이에요. 딸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사례 5).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자녀 양육 혹은 교육에 있어 어려운 점들 가운데 하나가 이중 언어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 부인이 중국인 어머니랑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지 않고, 또한 중국 아이들과 어울리는 자녀는 한국 아이들과 놀기를 싫어하고, 또래 한국아이보다 한국어 실력[18]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사례 11). 필리핀 부인은 집에서 3개국 언어, 즉 한국어, 영어, 타갈로그어를 사용함에 따라 아이의 한국어 실력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가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사례 16).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아이의 이중 언어 교육은 가족이 협력 혹은 갈등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족의 협조 하에 자녀의 이중 언어 사용이 권장되는 반면 두 번째는 자녀의 이중 언어 사용이 억제되는 경우이다.

> 내가 딸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틀리게 가르쳐줄 까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나는 낮에는 딸이랑 중국말을 하고, 밤에는 시어머니가 돌아온 후 다 함께 한국말을 해요. 그래도 간단한 한국말은 해요. 딸은 이제 말을 많이 할 수 없

지만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이런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찬성해요. 우리는 중국어이랑 한국어로 같이 애를 가르쳐요(사례 9).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 계획은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올케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외국인이 많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만큼 한국말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르치지 않았고 며칠 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현재 우리 둘뿐입니다. 전 더 이상 아이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절 제대로 믿지를 못하더군요. 전 아이에게 영어로 말하고 있어서 그런 가 봅니다(사례 18).

2) 친구와 이웃 관계

이웃과 친구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물질적·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한국인 친구, 이주민 친구와 관계 맺는 방식은 가족 중심형, 한국인 친구 중심형, 이주민 친구 중심형, 복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황정미, 2010, 11). 이 유형에 따르면, 연구 사례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대체로 한국 친구보다 이주민 친구들과 자주 만나 도움을 받고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겐 한국인 친구가 없습니다. 베트남인 친구만 있어요. 많이 있지요. 가까이 살고 있어서 자주 모이는데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같이 모여서 먹고 그래요. 거의 매일 만나지요. 만나서 그냥 잡담을 해요. 슬프거나 즐거운 일도 같이 나누고 그래요”(사례 4). 한국인 친구와 관계하기가 어려운 것은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여유 시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친구는 거의 없어요. 보통 남편의 친구랑 만나거나 남편이랑 밖에 나가요. 남편의 친구를 만나도 한국말 실력 때문에 말을 안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바보처럼 그냥 앉아 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간단한 일상용어를 쓸 수 있으니까 모임에 가면 간단한 대화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의 한국어 실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사례 8).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베트남에서 결혼하면 친구, 친척이 있는데 우리처럼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웃주민과 교류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고 많이 외로웠어요.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언니들이 옆에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물론 외로울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는 친구랑 나눠야 하는데 언니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땐 좀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어서(사례 2).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가깝게(혹은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이 거의 없거나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웃과 친해지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을 찾고 있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은 이웃 사람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보거나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웃 주민과는 그냥 인사만 해요.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이 외국인인 저를 좋아할지 몰라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냥 인사만 해요.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관계는 대체로 좋지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가끔 한국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두 명이 그런 것 같아요(사례 4).

이웃과는 친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없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웃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가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말을 안 듣고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를 욕하고 싫어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어리다고 생각해 서….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가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사례 6).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웃, 길거리, 시장 등에서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웃의 혹은 낯선 한국인이 자신들에 대해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자 283,224명 가운데 117,006명(41.3%)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일터(4점 만점, 2.50점)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다음으로 상점·음식점·은행(1.74점), 거리나 동네(1.73점), 공공기관(1.53점), 학교나 보육시설(1.50)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중국 결혼 이주자는 중국에 대한 차별은 이들 국가에 대한 대중매체의 편향(혹은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TV에서 항상 중국에 대한 나쁜 것을 방송해요. 전에 TV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로 약을 만들거나 가짜약 뉴스를 방송했고, 광저우에서 태반으로 탕을 만드는 뉴스를 보고 나서 메스껍다고 생각했어요"(사례 11).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웃 혹은 낯선 한국인들의 차별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않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19]하는 경우도 있다.

> 한국 사람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내가 어디서 온지를 물어요. 중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좀 경시하는 억양으로 "아~~~"로 대답해요. 시장에 장보러 갈 때도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게 중국산과 한국산인 것을 구분해서 강조해요. 좀 중국 사람을 경시하는 느낌이 있고 중국 사람에 대해 편견이 있어요. 내 남편의 가족도 나를 경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의 가족은 원래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한국인이면 아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의 가족에 대해 좀 불만이에요(사례 10).

> 저는 같은 반 일본인 친구와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주인은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말로, "오, 고생 많다"라고 말하고 저에겐, "(한국에 오니까) 잘 살지? 밥 잘 먹지? 옷 입을 수 있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티비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이 옷도 없고 음식도 없는 것을 보았어." "티비에 들어가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당신이 필리핀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세요. 티비를 통해서만 그런 것들을 보았으면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곳에 살기 때문에 당신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모두 가난하고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부자들과는 달리 가난한 우리들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필리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가 겁 을 먹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 이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본인 친구가 "언니, 잘해요! 파이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매우 놀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가 마트를 지나갈 때마다 주인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반갑게 맞아줍니다(사례 18).

6. 국가와 관계성 그리고 국민정체성의 변화

1970년대 이후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의 재구조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 로컬화(localization), 세방화(glocalization)는 국민국가의 위상이 주변화 혹은 부재화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 금융자본의 세계화, 신사회운동(인권·환경·평화 운동)이 국민국가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통제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의해 탄생한 가상공간에서는 시·공간의 수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영토, 주권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 특히 한국과 같은 소위 '단일 민족과 언어'를 전통으로 하는 국민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속한 국민을 규정하는데 배타적(독점적)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권력은 결혼 이민자의 국적 부여에 관여하면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김두년, 2013; 양현아, 2013).

한국 국적의 취득은 여성 결혼 이주자를 독립적인 행위 주체로 만드는 반면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이혼은 여성 결혼 이주자를 불법체류자로 만든다. “한국국적을 받기 전에는 모든 일에 남편의 사인이 필요했지만 이제 내가 한국 국적이 있어서 후견권이 있어요. 한국 신분증이 있으면 삶이 더 편하고 일을 할 때는 효율성이 더 커요”(사례 15). 이와 반대의 사례도 있다. “한 친구는 서울에 시집을 갔어요. 우리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혼[20]을 할 때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녀가 만약 다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또 합법적이게 될 거에요. 주로 경찰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해요”(사례 12).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283,224명 가운데 149,791명(52.9%)이 한국 국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 없을 경우, 향후 한국 국적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참여한 149,791명(100%) 가운데 89,185명(59.5%)이 한국 국적으로 바꿀 계획이고, 21.804명(14.6%)이 영주권만 받을 계획이라고 대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개인 혹은 가족의 상황이 고려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은 이혼 등의 사유로 불법체류 혹은 (비)자발적 귀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례 연구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가족, 특히 자녀의 장래를 위해 취득할 생각을 갖는 경우와 시어머니의 반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

> 지금은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고 해요. 국적을 바꾸는 것은 주로 아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명단에서 아버지의 이름만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 갔는데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면 아이는 반에서 석차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시를 받을 것 같아서 아이를 위해 국적을 바꿔야 해요(사례 13).

> 저는 아직까지 한국 시민권자(국민)가 아니고 시민권을 가질 생각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지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겠다는 소망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종(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필리핀 인입니다. 시민권을 바꾸는 것에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사례 17).

대한민국 국가는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국민으로 통합(혹은 동화)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법[21]과 이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라휘문, 2011; 조상균 등, 2008).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유지와 보호뿐만 아니라 산후 건강관리, 아동 보육·교육, 생활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가 여성 결혼 이주자의 신체와 가족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22]는 결혼 이민자를 일상적으로 접촉하여 교육·상담,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기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민자는 정부의 지원 시설 인지도에서 주민센터(251,815명 중 88.9% 인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202,305명 중 71.4%인지)가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결혼 이민자가 받은 적이 있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종류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 교육(76,432명 중 27% 경험), 가정 방문 교육(57,155명 중 20.2% 경험), 임신출산 지원 및 부모 교육(29,292명 중 10.3% 경험),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25,120명 중 8.9% 경험) 등이다(여성가족부, 2013). 이것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과 지원 사업이 여성 결혼 이주자 자신과 가족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사례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언어, 기술, 친구 사귐, 정서 등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문화센터 행사를 참가한 후에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무료로 놀고 우리에게 음료수를 사

고 우리에게 잘해줘요. 센터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한복이나 제사하는 것이에요(사례 8).

아는 중국친구는 주로 센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친한 친구는 다 그때 아는 친구입니다. 중국에서 와서 언어가 같은 나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만 교류하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하고 친구도 없고 남편의 가족은 봐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중국 사람을 보는 것이 참 좋아요(사례 12).

다른 국가와 문화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국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함과 동시에 양국 모두에 소속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사례 2[23]에 의하면, 베트남 출신인 자신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질문하면 베트남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한국 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돌아가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다른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평생 한국에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도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 모두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지만 본인이 필리핀과 한국인 모두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의 외국인 편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사례 18).

저는 이제 한국시민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평생 산다는 확신이 없어 저 자신을 아직 필리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착되고 안정되면 저는 필리핀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시민으로써 여기의 모든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서 매년 투표하는 것 등 어떻게 한국인으로써 지내는 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선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보고 여기서 평생 살아라고 말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내면으로는 저는 아직 필리핀인이고 아이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가르치고 또한 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과 필리핀 문화 둘 다 알아야 합니다(사례 16).

저는 필리핀-한국인이라 불리는 것에 아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한국에서 차별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 외국인이죠? 라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리핀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너는 필리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저는,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ID 보세요. 이거 보면 내가 필리핀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말해봐요"라고 말합니다(사례 18).

위의 사례와 같이 이중의 국민 정체성 혹은 두 국가 모두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이(in-between) 혹은 제3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는 달리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민 정체성으로 규정짓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 인용된 〈사례 8〉은 한국 지향적 정체성을 보이는 반면에 사례 1은 모국(베트남) 지향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 생활은 익숙해요. 여기가 더 이상 외국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특별히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남편은 다른 사람도 집에 가니까 나에게 집에 한번 가자고 했어요. 나는 가서 뭐 하냐고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사례 8).

저는 재작년(2009년)에 귀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직도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자신 있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사례 1).

7. 결 론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전통적 가족 구조와 관계 그리고 로컬(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들, 다중 언어교육, 인종 차별, 이중 국적, 인종별 사회·경제 불균등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

에 의한 가족과 로컬의 변화는 기존의 국민국가에 토대한 이주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조직, 국가와 관계하면서 겪는 갈등, 차별,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을 새로운 시각, 즉 초국가, 로컬, 국가의 중층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들 공간은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의 다양한 관계적 활동에 의해 생성·유지되며, 객관적(추상적) 혹은 계층적(위계적) 구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자면, 초국가적 공간과 로컬 공간 간의 관계에 있어 전자가 후자보다 거시적이고 혹은 지배적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두 공간의 관계는 결혼 이주 여성이 국가 경계를 초월한 활동들, 즉 송금,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친정가족과 소통, 친정과 시댁 간의 물건(선물) 교환, 친정 방문, 친정에 자녀 양육과 교육 부탁 등에 의해서 유지될 뿐이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 관계적 공간의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제결혼에 의해 초국가적 공간이 형성되며, 생성된 공간은 결혼 이주 여성의 (비)일상적 활동에 의해 유지된다. 초국가적 활동으로는 송금, 친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친정 방문,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 등이 있다. 특히 송금은 친정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친정가족의 위계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역할, 친정(모국)에 저축 또는 부동산 구입을 통한 부의 축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 사례는 친정의 경제적 지원 이외에 송금의 능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단체, 기관 등과 연관됨에 따라 중층적인 로컬 공간이 형성·유지되고 있다. 가족 관계는 경제, 문화 차이, 자녀 양육과 교육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며, 억압과 차별 그리고 협력과 배려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차별의 주된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다. 결혼 이주 여성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웃, 한국 친구 등과 의사소통에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웃과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정도로만 지내고 있다. 한국 친구보다 모국(베트남, 필리핀, 중국)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정서적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결혼 이주 여성은 시장, 거리, 직장 등에서 한국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는 외국(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대해 한국의 대중매체가 일반인에게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셋째는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 취득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 사업의 측면에서 국가 권력 혹은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국적의 유무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혼 혹은 남편 사망 등에 따라 불법 혹은 합법 체류의 자격을 규정한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 사업은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에게 교육, 상담, 정보제공,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 정체성과 관련지어 결혼 이주 여성은 자신이 모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국민인지 구분이 어려운 불확실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법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자신은 여전히 베트남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또한 한국 사람이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외국인이라고 규정하면 한국 국적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구분하여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

주

1)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간은 다양한 관계, 즉 결혼 이주 여성이 친정 가족 혹은 고향 친구, 남편, 시댁 식구, 이웃 주민, 단체, 국가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성·유지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계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선험적(혹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아닌 다양한 관계적 활동에 의해 생성·유지된다. 즉, 관계적 활동이 중단되면 관계적 공간도 사라지게 된다.
2) 국제결혼은 3가지 형태, 외국인 남성노동자와 결혼하는 한국여성,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 외국인 남성노동자와 외국인 여성노동자 간에 결혼하는 형태가 있다(여성가족부, 연구보고 13, 2012).
3) 외국인의 혼인 이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형태가 변화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며,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1992년)을 계기로 중국의 조선족 여성이 한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결혼 양상은 200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김두섭, 2006, 26).

4) 본 연구의 토대가 된 결혼 이주 여성의 구술 자료는 연구 사업에 의해서 구축되었다. 원자료는 경북대학교 이채문·조현미 교수(사회학과와 지리학과)가 주도한 대구경북지역사회연구 특성화사업단의 연구과제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20명의 결혼이주여성 구술은 이채문·조현미, 「대구경북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이야기」(2013년 3월, 미간행)에 수록된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 자료에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40명(중국 10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10명, 일본 10명)의 구술이 포함되어 있다. 40명의 구술 가운데 일본여성(10명)의 대부분은 통일교와 관련지어 국제결혼을 한 경우이고 구술의 내용도 다른 사례들에 비해 추상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연구 자료로 채택하지 않았고, 필리핀 구술자(10명) 가운데 5명은 결혼 이주 남성(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결혼)이기 연구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베트남 구술자(10명) 가운데 3명과 중국 구술자(10명) 가운데 2명은 구술 내용을 본 뒤 제외되었다.

5)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결혼이민자의 용어는 귀화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 국적의 취득 유무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분류하고 있다.

6) 1910년부터 1924년 '배일(排日)이민법'으로 일본인의 미국입국이 금지될 때까지 하와이로 건너간 조선의 사진신부는 모두 951명이었으며, ... 이 시기 사진결혼이 성행하게 된 것은 하와이 독신 (노동)이민자들의 '가족만들기'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그것은 결국 일제의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이경민, 2007, 411).

7) 약 9만 명의 한국여성들이 1950년에서 1989년까지 미군 아내라는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 여성들은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70만 명 중 약 13%에 달한다. ... 미군의 주둔은 기지촌의 형성과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을 낳았으며, 한국 여성들에게 현금출납원, 사무보조원, 비서, 웨이트리스 등으로 미군기지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결국에는 이들 간의 결혼을 가능하게 했다(여지연, 2003, 324-325).

8) 이 저항은 흔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여 저항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삶 속에 철저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신이 살아온 역사, 즉 자존심(self-respect)이 손상되지 않는 완전한 자아(whole self)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부인 것이다(여지연, 2003, 321). 임옥희(2007)가 번역한 여지연의 저서,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아내들 이야기』의 한 서평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주목하던 사회의 시선은 점차 결혼 이주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주체적 혹은 독립적] 행위자성에 주목하고 있다(문은미, 2007, 289).

9) 남성은 나이나 초혼/재혼 여부, 직업과 수입이 좋고 나쁨의 여부,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부를 떠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를 수 있고, 어린 신부와 결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었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결혼 상대를 구하기가 어렵다. 특히 재혼일 경우,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아줄 젊은 아내를 찾기도 어렵고, 더구나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며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제결혼이라는 결혼시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은 크게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김혜선, 2012, 84).

10) 종교, 특히 통일교는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함을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정선의 연구 의하면, 12명의 필리핀 여성들 가운데 6명이 통일교를 통해서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다(김정선, 2010, 9). 이채문·조현미(2013)의 구술자료집에 의하면,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 결혼 이민자 10명 가운데 8명이 통일교를 통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

11) "그녀(필리핀 결혼이주여성)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족뿐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친밀한 사회관계를 갖지 못하며, 이러한 관계의 빈곤은 노후 유입국 사회에서 겪게 될 사회적 단절,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킨다" (김정선, 2010, 24).

12) 그는 제가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왜 항상 중국의 집을 생각 하냐고 해요. 한국 사람은 혈육 간의 정에 대해 좀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서 부모는 제일 중요하다고요. 처음에 올 때는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오래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기를 키운 후에 생각이 변했어요. 여기는 내 집이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기가 생긴 후에 나랑 남편의 관계가 더 좋아졌긴 해요(사례 9).

13) 여성들의 해외 이주가 가져온 경제적 자원, 즉 생활비, 땅, 새 집은 전통적 카스트 제도를 벗어나기 위한 투자로 변형되기도 하고, 귀환 여성들이 남편의 가족과 친정가족,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증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김현미, 2012, 119).

14) 사례는 임안나의 글(2005, 87)에서 인용되었다.

15) 저는 이벤트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자주 나갑니다. 어머니께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더라도 "알겠어, 그냥 가"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어머니께서 화가 나시든지 말든지 나가는 것은 제가 정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필리핀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세미나나 미팅이 있을

때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집에 돌아오면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여 저 때문에 화를 많이 냅니다. 제 생각엔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저 때문에 화가 날 이유를 만들기 위해 제가 화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대적할 자신이 없습니다(사례 17).

16) "가족이란 각자(개인)의 이해를 최대한 그리고 공정하게 추구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집단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장애형제와 비장애와 같은 '차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대다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가족의 미덕이 보살핌과 사랑과 나눔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동시에 구조화된 차별이 있고 폭력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 동의한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 기대는 여성의 사회적 열등화와 빈곤화를 영속시키는 가부장적 기제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양현아, 2013, 328).

17) 다음은 종교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이다. "시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거기 가는 것이 좀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국인이 있었고,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중국인이랑 얘기 했어요. 일요일마다 거기에 꼭 가야하는 점은 싫어요. 6개월 지나고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주로 내가 교회에 안 가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편견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기독교를 믿는데 내가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온 후에 남편도 교회에 별로 안 가서 시어머니는 나 때문에 남편이 교회에 안 간다고 생각해서 나를 싫어해요"(사례 10).

18) 남편이 말을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중국 사람이랑 교류하고 중국어를 해요. 아기를 유치원에 보낼 때는 선생님이랑 인사하는 것뿐이에요. 하루 종일 한국 사람과 접촉하지 못해서 한국어 실력은 아직 이 수준이에요. 남편과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성장에게도 영향을 줘요.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면 딸의 언어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문제가 아니에요. 딸은 한국어를 잘해요. 내가 중국어를 거의 안 가르치고 이제는 간단한 명사를 알고 내가 딸에게 이 단어가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면 아이는 싫다고 해요(사례 12).

19) 한국 TV에서 자주 중국에 대한 나쁜 점이나 빈곤한 점을 방송해요. 중국에 대한 좋은 점은 방송하지 않아요. 관광방송은 상하이, 북경, 장성 등을 보도하는데 그들은 중국에 대해 이런 점만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장가계, 주자이거우 등 좋은 관광지가 있고 하얼빈이나 심양에 있는 얼음으로 만든 성도 매우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한국의 TV에서 나오는 도시는 빈곤한 도시이고, 거기에 사람이 밥을 못 먹는 것 등 빈곤한 점만 보도해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고구마를 먹어 본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중국에서는 고구마를 다 돼지먹이로 준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이것은 농담이에요. 중국은 땅이 넓고 생산물이 풍부하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선생처럼 중국에 대해 잘 모르고 가본 적이 없어서 더 몰라요. 단지 TV를 보고 TV에서 나온 것만 알아요(사례 13).

20) 국적의 소유 유무는 이혼 후 결혼 이주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삶을 유지해요. 그리고 재작년에 국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 식구들에게 이혼한 것을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울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밤에 오빠가 전화를 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이제 한국 국적이 돼서 일이 있으면 정부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사례 14).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에 법률 제8937호로 제정되어 당해 9월 22일에 시행되었고,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22) 2010년 159개소의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총 사업 이용자는 1,234,670명이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한국어 교육사업 이용자가 593,967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교육사업 이용자가 274,499명(22.3%)이었다(라휘문, 2011, 53).

23) 저는 귀화했지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베트남사람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을 물론 사랑합니다. 오히려 지금 베트남에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익숙해있기 때문에요(사례 2).

문 헌

구미시, 2013, 외국인 국적별 현황.

김두년, 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49, 325-347.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 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김정선, 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1-39.

김혜선, 2012, 초국가적 가족의 형성과 가족유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광역시, 2012, 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라휘문, 201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정책연구, 11(1), 43-63.

류주현,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분포와 민족적 배경에 관한 소고: 베트남·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71-85.

박경환, 2009, 초국적 민족주의와 초국적 국가 기구의 부상: 한국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2), 146-160.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4(1), 40-53.

법무부, 2012,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219-239.

신성려, 1979, 하와이 사탕밭에 세월을 묻고: 한국여성 북미 초기이민 실화, 창작과 비평, 14(1), 269-297.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이채문·조현미, 2013, 대구경북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이야기, 미간행물, 경북대학교 대구경북지역사회연구 특성화사업단.

여성가족부, 2012, 연구보고 13: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2013, 보도자료: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발표.

여지연, 2003, 소외와 차별을 넘어: 미국 내 한인 미군 아내들의 자매애와 저항(1950~1996), 당대비평, 21, 321-336.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석회, 2009, 한국의 초국적 결혼이주와 신민족성의 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393-408.

양현아, 2013,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저스티스, 134(2), 298-335.

왕치엔, 2011,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 대구시 사례,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조상균·이승우·전진희, 2008,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8(1), 147-209.

조현미, 2008, 고령군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4), 347-366.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최병두, 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13-36.

최재헌,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여성결혼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10(2), 1-14.

Bauder, H., 2013, Nation, 'migration' and critical practice, *Area*, 45(1), 56-62.

Gielis, R., 2009, A global sense of migration places: towards a place perspective in the study of migration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9(2), 271-287.

Hoang, L.A. and Yeoh, B.S.A., 2012, Sustaining families across transnational spaces: Vietnamese migrant parents and their left-behind children, *Asian Studies Review*, 36(3), 307-325.

Levitt, P. and Glick Schiller, N.,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Ley, D., 2004, Transnational spaces and everyday liv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9(2), 151-164.

Pessar, P.R. and Mahler, S., 2003, Transnational migration: bringing gender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812-846.

Portes, A., et al.,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

(2), 217-237.

Portes, A., 2003, Conclusion: theoretical convergencies and empirical evidence in the study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74-892.

Voigt-Graf, C., 2004, Towards a geography of transnational spaces: Indian transnational communities in Australia, *Global Networks*, 4(1), 25-49.

Wimmer, A. and Glick Schiller, N., 2002,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beyond: nation-state building, migr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Global Networks*, 2(4), 301-334.

Wimmer, A. and Glick Schiller, N., 2003,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576-610.

(접수: 2013.04.16, 수정: 2013.05.10, 채택: 2013.05.14)